"금융위기 10년 주기說 근거없어… 설 이후 안정될 것"

리서치센터장 긴급 증시진단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조정장 길지 않을 것"

이경수
메리츠종금
"국내증시 조만간 안정"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저가매수 기회 활용"

이종우
IBK투자증권
"투자금 적당히 덜어내야"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투자보다는 관망 필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때 2.8%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장을 연출하고 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채권값 하락) 증시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지난 9년 간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이끌었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국내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을 우려하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조하기 때문이다.

6일 주요 증권사(메리츠종금·미래에셋대우·IBK투자증권·이베스트·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5명에게 향후 국내 증시 전망을 물은 결과,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국내 증시 조정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현재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신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제롬파월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는 평가다. 또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마지막으로 패시브(지수추종형)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하락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다만 지금의 조정장은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호 센터장은 "10년 주기설을 말하면서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데 과거와 달리 국내 금융기관이 위험자산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증시 펀더멘털도 견조하다"면서 "향후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 센터장은 "미국 임금 인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기대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를 키(key) 데이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금융지표들은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도 설 전까지 변동성이 커지다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현재 조정장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나왔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이번에 강하게 조정을 받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윤지호 센터장 역시 "설 연후 이후 상승 흐름을 되찾을 것"이라며 "지금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 조정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은 없었지만 당분간은 추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너무 높다. 그동안 주가를 끌고 왔던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에 변화가 생긴 만큼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을 적당히 덜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게 이종우 센터장의 조언이다.

또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주식시장 펀더멘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리스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라 투자보다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6일 오후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한화토탈에서 '화학산업 발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대산·울산·전남 여수

3대 화학단지 성장에 팔 걷는다

정부 '화학산업발전간담회'

정부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울산·여수 등 3대 화학단지를 특성화 해 제조업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화학산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학업계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 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위의 내용이 담긴 '화학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산2산업단지와 4지역 용지, 주변부지 등 총 200만㎡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입주기업의 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플라스틱·정밀화학 중소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화학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인 가뭄 등으로 문제가 된 용수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노후배관망과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 조선 등 지역산업에 필요한 고부가 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부산지역과 연계해 특수고무 등 고부가 탄성소재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고무벨트'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화학 산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적극 나선다.

올 상반기 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국내 5대 수요산업과 연계된 10대 정밀화학 소재를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인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진, 내화, 친환경 소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해 건축, 환경 소재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석유화학산업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기초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20%에 달하는 고용과 생산, 수출을 책임지는 화학 산업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며 "화학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혁신과 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응해 국가 중추 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허수영 석유화학협회장도 "업계 또한 고부가 소재에 대한 R&D와 투자확대,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은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에 3조원을 투자하고, 인근 업체와의 연계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금융시장 변동 등 '부정적' 영향 모니터링"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불안확대 대비 적극대응 요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6일 "미국 등 글로벌 증시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증시 하락은 지난 1년간 지속 상승에 따른 고평가 부담과 물가상승 전망에 따른 금리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미국 증시는 전일 다우지수가 4.6% 하락하며,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고, 주가변동성지수인 VIX도 전일 116%나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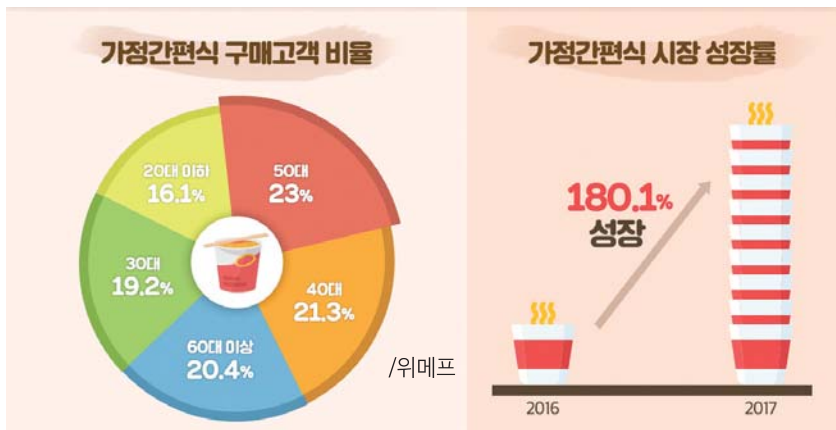
최 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올림픽 이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차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4050세대도 모바일로 '신선식품' 장본다"

'모바일 장보기' 중장년층 수요 늘어



/위메프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세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20~30대가 모바일 쇼핑의 주요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40~50대는 물론 60대도 온라인에서 식품을 주문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식품은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한다'는 편견을 격파하고 e커머스 업계의 식품 판매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6일 옥션이 지난해 연령대별 식품 품목 판매신장률을 조사한 결과 50~60대의 신선·가공식품 구매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우선 쌀과 과일,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50대가 전년보다 31% 증가했고 가공식품은 45% 성장했다. 60대는 각각 39%, 50% 급증하며 고연령층의 온라인몰 식품 구매 성장세를 이끌었다.

티몬에서도 중장년층의 모바일 장보기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1월 생필품 최저가 채널 '슈퍼마트'를 선보인 티몬은 신선식품 카테고리 '티몬프레시'에서 월매출 성장률 31.5%를 기록했다.

연령별 구매자를 살펴보면 30대가 42.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운데 40대이상이 34.5%, 20대가 15.5%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던 중장년층이 모바일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며 모바일에서 장을 보는 것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티몬측은 설명했다.

위메프에서는 50대의 가정간편식 구매가 늘었다.

위메프의 지난해 가정간편식 매출은 2016년 대비 180.1%가 증가했다. 매출 성장에 견인한 단골 구매 고객은 '50대'다.

가정간편식을 구매 고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23%)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40대(21.3%), 60대 이상(20.4%), 30대(19.2%)가 순을 이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